

질문

창의·인성수업을 실현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한 협동학습 과제를 모듈별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의견만 내세우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을 하는 학생 등 의도치 않은 광경을 보고 좌절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바람직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해주세요.

답변

도마초등학교 하수지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열심히 준비한 수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쉬우셨겠어요.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다른 친구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수업과 관련 없는 ‘딴짓’을 하며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꾸준히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요?

여기서 ‘사회적 기술’이라 함은 ‘원활한 집단생활을 위한 의사소통과 약속을 따르는 행동’을 일컫는데요. 창의·인성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경청과 집중법 등 간단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선생님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읽고 고민을 나누며 도움을 얻은 책 중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계별 대안으로 정리해드리오니 읽어보시고 선생님의 교실에 적합한 대안 또는 순서로 변형·적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단계 ① : 교실 환경 중 빈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술 센터’ 게시판을 만든다.

〈사회적 기술 센터〉

- 존칭어를 사용하여 활동하기
- 소곤소곤, 도란도란 말하고 경청하기(이번 주 기술)
- 모든 일에 순서/차례를 지켜서 활동하기
- 주어진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다양한 사회적 기술 중 ‘이번 주 기술’을 학급 구성원이 함께 정한다. (투표, 추천 등)

단계 ② : (구체적인)사회적 기술이 왜 필요한지, 배워서 실천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토의한다.

소곤소곤 말하기

“한 모둠에서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면 옆 모둠의 친구들은 서로 잘 들리지 않아서 알아들을 수 없게 되겠지. 그러면 옆 모둠 목소리가 더 커지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모둠의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로 서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토의한 내용은 칠판 나눔, 게시물/표어/포스터 제작, 모둠 문장 만들기 등으로 공유한다.

단계 ③ : 모둠 내 역할을 정하고, 역할별 사회적 기술 이끔말을 안내·시범 보인다.

이끔이	모둠원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대신 풀어주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다시 해 보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방법을 잘 생각해 보자.”
	궁금한 점은 모둠 내에서 해결하고, 필요 시 교사에게 도움을 구한다.	“이 문제가 어려운가 보구나.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렴.” (모둠 질문) 모둠원 모두가 손을 든다. “선생님, 저희 모둠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모둠원들이 활동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은미의 생각이 참 재밌구나! 영호,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럼 철수의 이야기부터 들어 보자.”

나눔이	학습 도구를 걷거나 과제물을 걷거나 정리하고 모아 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앞에서 가져온 풀과 가위 내게 주면 고맙겠다. 내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게.”
	모듬원의 학습도구 준비 여부, 학습과제 해결 여부,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애들아, 1번 과제는 다 해결되었지? 그러면 모두 컴퍼스를 가지고 2번 과제를 해결하자.”
지킴이	모듬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모듬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모듬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목소리를 조금만 낮추도록 하자.” (교사가 신호를 해 주면 더 좋다-‘소곤소곤’)
칭찬이	모듬원이 생각을 말할 때 마다 칭찬의 이끔말을 해 준다.	“아주 멋진 생각이야. 좋은 아이디어야!”
	모듬원 전원이 개인이나 모듬 전체의 성과를 다같이 나누고 칭찬하도록 이끌어 준다.	“잘한다. 우리 모듬 최고! 우리 모두 명수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자. 힘내라고!”
기록이	모듬원의 활동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한다. (토의 내용, 문제의 답, 각종 활동물)	“너무 길어서 잘 기억할 수가 없구나. 다시 한 번 말해 주면 고맙겠다.”
	모듬원이 지난 활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 (활동 과정의 정리)	“우리가 지금 이 과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것 맞지?”

이 때 학생 스스로 이끔말을 추가로 만들어 카드에 적어두면 수시로 참고할 수 있다.

단계 ④ : 사회적 기술에 대한 반성 - 교사의 질문 또는 자기평가

1) 반성을 위한 질문 “이번 주의 기술은 ‘소곤소곤 말하기’예요. 모두가 이 기술을 잘 사용하고 있나 돌아봅시다. 잘 안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봅시다.”

2) 사회적 기술 센터 연계 “사회적 기술 센터에 적혀있는 이끔말을 보세요. 오늘 이끔말을 들어 보았나요? 왜 듣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넣을 좋은 이끔말이 있나요?”

3)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기평가·모듬평가

위 단계별로 사회적 기술을 지도하시다가 모듬 또는 개별 학생이 특정 <문제상황>을 일으킬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부분입니다 ^^

문제 상황	기술	① 역할과 이끔말 ② 시범 또는 강화 ③ 활용 상황 예시 ④ 반성과 계획
모둠이 소란스러울 때	소곤소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킴이 “지금은 소곤소곤 말하는 단계야. 조금만 목소리를 낮추자.” ② 1단계 소곤소곤 말하기(30cm 간격, 귓속말 크기, 짹짹 활동) 2단계 도란도란 말하기(50cm 간격, 소리 낮춰 말하기, 모둠원과 활동) 3단계 발표하기(모두에게 들릴 크기) 4단계 환호하기(운동장에서 들릴 크기) ③ 과제를 시작할 때 말하기 크기 강조 “다음 과제를 하는 시간은 10분으로, 1단계 말하기 ‘소곤소곤’으로 합니다.” ④ 필요시 언제든지 활동을 멈추고, 소란 정도에 대한 반성/계획 시간 갖기
갈등, 적대적	갈등 해결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끔이 “그 생각도 좋다. 그런데 성민이, 네 생각은 어때니?” ② 갈등 없는 모둠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강화, 칭찬하기 ③ 동전 내놓기, 만장일치, 가치 수직선, 찬반 토론 ④ 질문 “이번 활동을 하면서 모든 모둠원들은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나요?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갈등을 줄일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생들이 도움을 바라지도 주지도 않음	질문 및 돕는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것을 잘 모르겠어.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어.” “이해 되니? 설명해 줄게. 나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줘!” ② 이끔말을 잘하는 학생 및 적극적 도움을 주는 학생 칭찬 강화 ③ 칭찬 카드 활용 ④ 질문 “친구를 도와줄 때/도움 받을 때 기분이 어땠니? 뭐가 좋아졌니?”
한 학생이 대장 노릇, 지배욕 또는 모두 동시 발언	동등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끔이 “다른 친구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자. 순서를 지켜서 하자.” “승훈아, 영미가 한 말에 대한 너의 생각을 말해주겠니?” ② 역할 확인, 동등한 참여가 잘되고 있는 모둠에 대한 칭찬 강화 ③ 말하기 카드, 찬반카드, 짹 점검 ④ 질문하기 “오늘도 고르게 참여했나요? 동등한 참여를 위한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모둠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소외 학생 또는 따돌림 당하는 학생	참여 격려 적극적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끔이 “민수가 여기에 색칠을 해 주지 않을까? (해 주면 좋겠다.)” 칭찬이 “네 생각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누구나 다 알 수는 없어.” 또는 ‘특파원(정탐 보고자)로 임명 ② 모두가 참여하는 모둠은 강화, 격려의 말로 인정해주기 ③ 말하기 카드, 돌아가며 말하기, 짹 점검 ④ 질문하기 “모두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끔말은 어떤 것이 좋을까? 모두가 참여하도록 한 일은?”

<p>소심, 수줍음, 활동 거부</p>	<p>격려와 칭찬</p>	<p>① 이공이 “이번에는 승민이의 생각을 듣고 싶다. 말해 줄 수 있겠니?” ② 그 학생의 어려움을 교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 학생과 모둠이 한 일을 적극 칭찬한다. ③ 듣고 그리기, 말하기 카드, 돌아가며 말하기 ④ 질문하기 “우리 모둠이 모두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 했니?”</p>
<p>폭력적 난폭한 학생</p>	<p>메시지 사용 정중한 요청과 거절 존칭어 쓰기</p>	<p>① “지금 나는 네가 ~해서 속이 상했어. 다음부터는 ~ 했으면 좋겠어.” “네가 함께 잘해 주어서 우리 모두 너무나 기분이 좋다.”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면 좋겠어.” ② 교사가 그 학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 설명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둔다. ③ 칭찬 카드 활용 ④ 질문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했나요?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것을 누군가 허락도 없이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중한 요청 이공말로 어떤 것을 들었나요?”</p>

아이들과 사회적 기술을 연마하다보면, 하루 이틀로는 충분치 않더군요!
 선생님의 구체적인 시범, 꾸준한 훈련과 강화,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과 반복이 중요한 듯해요. 소개해드린 내용이 선생님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p.s. 혹시 이와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아래 책을 참고해 보세요 ^^

※ 참고 서적: 살아있는 협동학습(2009) p.159~174, 이상우 저, 시그마프레스